

# 인터넷세상과 문화

송관호/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새 천년의 벽두부터 우리 나라의 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올해부터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인터넷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 수는 지난 1년동안 3배 정도 증가하였고, 도메인 수는 1998년 말 2만 8,000개에서 1999년 말에는 20만여개가 등록되어 6배 정도로 증가되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인터넷 확산 폭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장점이 단점으로 대두되고, 단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사회적인 현상의 가시화로 인식되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맥내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초고속서비스를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이버시대에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증권거래의 온라인 처리 건수나 온라인게임 등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터넷기업 만들기에 기업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년의 시작인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사이버교육, 사이버진료, 전자무역, 사이버증권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영역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 될 것이며, 금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전자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분야에서도 인터넷 방송이 확대되어 방송과 통신, 통신과 컴퓨터 결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 인터넷팩스, 인터넷영상회의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의 기반구조가 변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저히 기존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富)의 재편이 시도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대변하는 "인터넷세상"은 전세계적으로 열려져 있는 시공을 초월해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이나 새로운 차원의 대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무수한 시행 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인터넷 정보기구나 가전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기반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곧 닥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인터넷 기반구조를 조속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광대역통신망(WAN) 등 기간망의 고속화와 함께 가입자망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홈네트워크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차세대 인터넷 기반구조를 근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사이버진료, 사이버 교육, 사이버뱅킹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하며 새로운 서비스는 사고방식의 변혁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등의 개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멀티미디어서비스 시대에서 해킹, 전자테러, 컴퓨터보안 등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 보호 등의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디지털공간에서의 도메인이나 인터넷주소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며 사이버 국토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확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쟁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대책과 법·제도의 효과적인 정비도 기본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인터넷 세상으로 바뀌면서 앞에서 언급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0과 1로 구현되는 디지털네트워크보다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이슈는 새롭게 부각되는 정보의 빈부격차, 새로운 부(富)의 공평한 분배, 경험치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문화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이 괄목하게 증가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곤란한 계층이 더욱 늘어 갈 것이고, 수많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출현하여 집단의 이해관계

를 위해 서로 투쟁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인 글로벌화와 개인화의 틈바구니에서 개인, 가정, 사회의 가치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문화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언어분야에서 영국의 언어학자 David Graddol의 관찰 결과 1995년 인터넷 세상에서 영어로 소통되는 비율이 84.3%이었으나, 5년 뒤 현재 Altavista 통계에서는 영어가 62%이며, 앞으로는 40%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는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표현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며, 인터넷 이용에 모국어를 선호함에 따른 문화·경제적 블록화가 급속하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인터넷의 발전은 정부와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을 직접 연결할 수 있으므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 대립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측되는 사회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개인, 가정 및 사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보다 발전된 또 다른 세상으로의 전이가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시작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적인 고려가 없다면 매우 삭막하고 감성없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인터넷 세상이 아무리 광속 처리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가져 온다하더라도 사랑과 꿈이 깃든 사이버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소명이기 때문이다.